朝鮮日報

京城府明治町二丁目八二 朝鮮日報社 電話本局三七三番

社說

朝鮮銀行의 廢止說

一

朝鮮銀行券과 臺灣銀行券을 日本銀行券에 統一하며 兩銀行을 廢止하고 日本銀行支店으로하라는 日本銀行總裁의 提議에 對하야 大藏當局者도 이에 贊成하고잇슴으로 그實現은 오직時期의 問題라고한다、兌換券統一은 今日에 突發한 問題가아니라 발서브터 日本金融制度 調査會에서 각금問題되여오든바로서 大正十二年에 朝鮮銀行이 資本金을 半減할째에 朝鮮總督府가 가지고잇든 監督權이 大藏省에 移管된것이 발서統一에로의 한前提이엿든것이다 그런데 그의實現에對한 促進의氣勢가最近에와서 더욱 濃厚케된理由는 日本銀行의 保證發行限度가 十億圓으로 擴張되엿는바 朝鮮及 臺灣兩行의 一個年平均限外發行이二三千萬圓에 不過함으로 日銀券에 統一하여도 支障이 업스리라는것이 그直接 理由인것갓다

二

이밧게 더根本問題라할 몃가지가 잇스니 元來朝鮮臺灣의兩行과 가튼 特別金融制度를設한것은 國防上見地로 보아或은 朝鮮과臺灣이 外國의支配下에 서게될念慮가 잇지나안흘가하는 境遇를 考慮함에잇는데 지금에잇서서는 이러한念慮가 업다는것이 그理由의하나이려니와 무엇보다도 朝鮮銀行의 過去業蹟이非常히 不良하야 朝鮮의中央銀行으로서의 統制의機能을 喪失하엿슬뿐만아니라 그業蹟을 擧揚하기爲하야 發行券銀行以外에 다시 普通銀行과爲替銀行의 三行務를 兼營하면서 그優越한 地位를利用하야 普通銀行과 競爭하는 狀態에 잇섯슴으로 財界에서는 발서부터 이것을 問題로삼엇든것이다、簡言하면朝鮮銀行이半島財界의 統制力을缺하고 普通銀行化한 以上 中央銀行으로의職務은 當然히 日本銀行에 도라갈것이라함이 豫期되엇든바이다

三

여기서 萬一에 朝鮮銀行의 發券權만이 日銀에 統一되고 普通銀行及爲替銀行으로서朝鮮銀行이 그대로 存在한다면 그가朝鮮에 미칠影響에對하야 特히 이러타할무엇이업슬것이나 同時에 朝鮮銀行이 廢止되고 日本銀行支店이 代置된다면 그것은 얼마똥考慮할 餘地가잇슬것이다 웨그러냐하면 朝鮮銀行이 廢止되고 日銀支店이 代置된다면或은 朝鮮의財界를 統制하여나가는 機能에잇서서 朝鮮銀行보다 훨신나을던지모르나 그러나 發行券銀行行務만 取扱하는 日銀支店이 普通銀行으로서 또는爲替銀行으로서 朝鮮과 滿洲에 有力한中樞金融機關노릇하는 朝鮮銀行의 業務를 하지못할것이 分明함으로 金融의圓滑을 缺할念慮가 업지아니한것이다、그런만아니라 日本銀行의 擔保條件이 嚴重하야 貸出範圍가 極限될것이 分明한때 朝鮮土地家屋가튼 不動産以外에 엇더한 有力한 擔保物을 그러케가지고잇는것이 아님으로 金融의 圓滑로 보아이것은 實로重大問題라아니할수업다

四

勿論 이러한諸缺點을 補充하기 爲하야 既存金融機關을 利用하며 新金融機關을 設하는等 여러가지方策이 잇슬것도 想像못할바는 아니다 그러나 簡短히말하면 發行券의統一이라함은 日本全體의 金融上統制로보아서는 確實히 有益且必要한 것이지만 朝鮮이라는局部的見地에서는 그다지 有益한點을發見하기가어려운 것이다. 日銀支店이朝鮮銀行에 代置되는날 비록一時일망정金融의硬塞을來할念慮는잇서도 그로해서 朝鮮의金融이 보다 더圓滑하여지리라고미들만한條件은업는것가타보인다 設或日銀支店의進出로말미아마 將來에 朝鮮金融이圓滑하게된다하더래도 不動産以外에는거이何物도 所有치 안라고하여도 過言이아닌 朝鮮人에게는 何等의 影響을미치지 못할것이다

五個國會議結果

最終解決案成立

一括支拂額四十五億馬克

問題는 獨逸의 諸否如何

【로잔電】日、英、佛、伊、白 五國幹部會는 獨逸代表가 承諾한 一括支拂의 原則을骨子로하야 賠償問題의最終的解決을 達成할最終的 具體案을 完了하기에至하엿다 同案의要旨는 獨逸이 支拂할 一括支拂額을 暫定的으로 四十五億馬克으로하고 更히亞米利加가 戰債蕩減에 不肯할境遇에 關한佛國의要求인 安全保障條項에關하야서도 特殊한公式을 案出한것이다 그리하야 五大國代表는二日에右最終案을가지고 獨逸代表의諸否를求하라하는터인데 歐羅巴政局 今後의歸趨는 오로지獨逸代表團의右提案에 對한態度如何로決定될것으로 二日이야말로 로잔賠償會議에對하야 진실로宿命的 意義를가지고잇는것이다 更히賠償問題以外에 一般世界經濟의疾患救濟策을審議할 國際經濟會議 開催地 點問題도 同五個國幹部會一日의議題에올낫는바 一方으로國際軍縮會議와同樣으로 國際聯盟主催下에 同會議를開催할것이라는 議論이相當有力하다 그리하야 正式으로 聯盟主催案이 採擇되게된다하면 從來候補地로 말이잇든 倫敦은 當然失格될 것으로본다 但國際聯盟主催案에對하야는 聯盟國이아닌 亞米利加의 會議參加가 困難하리라는 非難이英吉利側에서 提言되엿슴으로 決定까지에는 多少曲折을 未免하리라한다

【로잔電】英、佛、伊、日、白、五個國代表는 二日의會議結果 歐洲諸國復興에 關한 細目을 決定하고그覺書를 作成한바 內容은아즉發表치안흐나 主要項目은 十個條로成하고 大體骨子는 賠償金을推尋하는代身 獨逸에서 所謂歐洲復興資金을 醵出시키고 그것을國債決濟銀行이 年五分利子로 歐洲諸國에 貸付하라는데잇다 右에對하야 佛國側에서提出한 保障條項은 英首相은此를覺書中에 記載치안코 今後 佛、獨首相과의折衝에委함을 主張하야 아즉 覺書中에 記載되지 안헛다 그러고 覺書의一項으로서 世界經濟會議召集을 記載하얏스나 期日場所는아즉空白으로되어잇다 然이나 目下倫敦이最有望視된다

復興覺書作成

【로잔電】五個國代表會議에서作成된 歐洲諸國復興에 關한內容은 아즉發表되지안엇스나 主義項目은十個條로되어잇고 大體의骨子는賠償을取尋치안는限 獨逸로하야곰 所謂 歐洲復興資金을醵出케하고 그것을 國際決濟銀行이 年五分의 利子로써 歐洲諸國에 貸付코저하는것으로 佛國에서提出한 保障條約에就하야서는 今日까지는 覺書中에包含되어잇지안은것으로보인다 右覺書의一項으로서世界經濟會議의招集을企圖하고잇는데 그時日과 方法에就하야서는 目下覺書에는空白으로하고 後日決定後 挿入할수잇게되어잇다한다

【로잔電】英、佛、伊、日、白 五個國代表 會議의結果 作成된 歐洲諸國 復興에 關한覺書는 로잔會議參加의 十八個國代表에게 各其配布되엇는데 그內容中에는 六月一日부터 三個年間 歐洲諸國間의 戰債賠償金 모라토리움을 實施할 提案이包含되어잇다

今後三年間을

賠償、戰債、猶豫

五國會議의 成案內容

【로잔電】賠償會議幹部會는 二日午後獨逸을除하고 五個國代表秘密會議를開하고 最後的解決案의作製에 成功하고三日에 이것을「맥도날드」議長으로부터「파펜」獨首相에게 手交키로決定하얏다、右解決案의要綱은 七月一日부터 向三個年間歐洲諸國間의戰債賠償金「모라토리엄」을實施하고

一、「모라토리엄」이 滿期가되어 獨逸이이에依하야 繁榮을恢復할時는 獨逸은歐洲復興資金의 名目으로 約四十億馬克의支拂을行함

一、亞米利加에對한 戰債에關하야 佛國이要望한「에스카레ー타」的保障條項은이것을 案中에明示치안으나 萬若支拂을强要할時에는 物上抵當權附獨逸公債를 支拂에 充키로할豫備的方策을 案中에包含케하야 安全瓣으로함

等을眼目으로한것이다、이에對하야獨逸側은不滿의意를表하고잇고拒絶의危險이相當히만타 萬若그러케되면 五個國會議는 一種의最後的을意味하는 强制的提案을獨逸에手交하는外에他途가업스리라한다

英佛代表合議

【로잔電】五國幹部會議에서 決定된賠償問題解決方式은主로獨逸이支拂할歐洲復興資金의總額에對하야英佛兩國間에意見이一致되지못하고今日「맥도날드」「에리오」兩首相은更히午前午後二回에互하야會談을行하고妥協點의發見에努力하얏는데그結果英佛兩國은모든點에잇서完全한意見의一致를보기에至하얏다한다

國際經濟會議

米國政府承認

【로잔電】本日의 五國幹部會議에서 世界經濟回復을 審議할國際經濟會議를 國際聯盟主催下에 로잔에서 開催할 것이란說이 有力하게되고 更히米國의 參加를 必要로함으로 英國首相맥도날드氏는 長距離電話로 米國政府의 意嚮을 確探한바 米國側은此招請에 應할것을 卽答하얏다 但『맥』首相은『로잔』이란것을 米國側은 倫敦으로 들은듯하야 米國의 參加는注目된다

態度如何로는

聯盟脫退도 不無

調査報告의 審査節次로

長岡代表에게 注意訓電

【東京電】一日의 聯盟總會決議에 依하면 聯盟側은 來八月末日에 리른卿의調査報告書提出을 俟하야 右報告書를形式的으로 九月下旬의 理事會에 上程하고 理事會自身의 報告書審査를 省略하고 直時十九個國委員會에 附託하야 同委員會에서 審査討議하고 更히總會에 上程할手續을 取할意嚮임이 明白한바 日本政府로서는 理論上뿐아니라 政治的으로云하야도 總會十五個國委員會가 此를審査함은 不可하다는 理由下에 리른卿의 報告를 理事會의手에서 十九個國委員會의 手에移한기는 絶對로反對한다 딸하 外務當局은 一兩日中으로 저네바의長岡代表에게 訓電을發하야 一日의總會決議에關하야 리른卿報告書의 取扱方法에 對하야 聯盟側의注意를喚起하기로된바 聯盟側이 此日本政府의 見解를無視하고 總會開催에 突進할 境遇에는 日本은 聯盟脫退의 擧에出할것이니 此에對한 聯盟의態度는重視된다

日本代表

總會不參加乎

內田外相就任과 强硬策

【東京電】一日의 聯盟總會決議에 依하야 聯盟調査員의 報告書 審議期間은 延長되고 滿洲問題討議를 爲한 總會가 今秋 十一月中旬乃至十二月에 開催될것은 決定的임과 今回의 聯盟措置는 聯盟이日本의 反對留保에도 不拘하고 滿洲問題에 强行的으로 規約第十五條를 適用하고 理事會決議에基한 리른卿以下의 調査報告를 總會에上程하야 總會로서 滿洲問題處理에 進出할 意思를 明白히한것으로日本政府로서는 此를 全面的으로 否認한다 딸하 今秋의 總會開催에 對하야는 日本政府는 斷乎한態度로써 反對할必要가잇고 外務首腦部로서도 從來의 保留附參加와 如한微溫的態度로써 하야서는 到底히 日本의所信을 貫徹하야 容認시킬수업슴이 明白함으로 右總會를 全面的으로 否認하는 意味로써 總會에는我代表를 參加시키지안는다 卽日本代表部의 저네바撤退를 決行할바 계될는지 未知어라고 認하게되엿다 딸하 內田外相就任을 機會로하야 다시强硬對策을 決定하리라한다

山岡開東長官

四頭政治統一後辭任

【東京電】陸軍에서는 滿洲國四頭 政治統一機關 設置에 關하야는 關係當局에 研究審議한結果 大體로 具體的決定을 得하얏슴으로 本月中에 最後로決定하야 八月初實現할 方針下에 荒木陸相은 齋藤首相과 過般來交涉을 進하고잇는데 山岡關東長官은 同機關設置에 依하야 近近辭任하리라고 觀測한다。

株式會社朝鮮日報社發起

朝鮮日報의 經營基礎確立

여러분! 朝鮮日報는 여러분의朝鮮日報인同時에 여러분과함께苦樂을가치하여왓습니다

이제朝鮮日報가 經營上困境에빠저잇슴은한갓朝鮮日報個體나 또는여기에서일을하는同人들의걱정만이안닐줄을밋습니다

그럼으로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朝鮮日報를살리기爲하야는 그의經營의 基礎를磐石과가치하야써 여러분과함께울고여러분과함께웃기를活潑히하기爲하야는 財政的으로 完全한成算을가저야할것으로밋습니다

그리하야 이제 우리는株式會社朝鮮日報社를創立하기로하엿습니다 資本金額과其他詳細事項은追後하야發表하겟삽거니와 여러분 이것만으로라도爲先朝鮮日報의將來를爲하야 安心하사기바라오며 압흐로더욱더욱愛護와鞭韃을주시기바랍니다

壬申七月四日

株式會社 朝鮮日報社

發起人 一同 白

掃匪軍正副

司令任命

【港口電】蔣介石은掃匪軍正副司令을左와如히任命하얏다

第一路(中央)司令蔣介石、副司令劉峙

第二路(左翼)司令何成濬、副司令徐源泉

第三路(右翼)司令李濟琛、副司令王鳳釗

그리고蔣介石은近近平漢의避暑地鷄公山에總司令部를移할貌樣이다

滿洲國對策

日調停案에對한

二日에發送

【新京電】滿洲國의海關接收에關하야日本政府가發한調停案에對하야滿洲國政府에서는對策을作成中이든바二日此를完成하얏슴으로回答과함께二日午後新京의日本領事館經由로日本政府에向하야發送되엇다

滿洲國警官

安東稅務司

住宅에侵入하야

海關書類持去

【上海電】安東稅關稅務司보르氏(米人)는本日總稅務司메즈氏에게 武裝한 滿洲國官이 日本人顧問과함께 滿鐵附屬地帶에 在한同氏의 住宅에 入하야 强制的으로海關書類를 持去하얏슴으로 直時日本領事館에 抗議한바 領事館에서는 다시此種行爲를 시키지안는다고 約하얏다고 電報로申告하얏다。

日貨抑留被害調査

【上海電】抗日救國會가票疎한日貨抑留를 行한後處分하기爲하야 新組織된全抗日貨制裁委員會는 一日부터 被害商人의 申告에基하야 抑留中인 日貨調査를開始하얏다 只今까지 廢棄한處分에 附한것이不少하고 그發覺을 恐하야 逃跡하는 者及寄附人과示談解決을 圖하는者가 續出한다

內田伯

六日外相就任

【東京電】內田滿鐵總裁는五日夜淸京케되엇는데內田伯은六月齋藤首相과會見한뒤正式으로外相就任을受諾하고首相은곳參內하야內奏諸裁可를伏請하고宮中御事情에달하야아마六月中에親任式을行하는同時에首相의兼攝外相을解할터이라고한다

任外務大臣 從二位勳一等 伯爵 內田康哉

內閣總理大臣兼外務大臣 子爵 齋藤實 免兼官

滿鐵總裁 內田康哉 依願免滿鐵總裁

朝鮮銀行廢止說에

總裁는全然否認

日銀이朝鮮金融을統制

=할수잇느냐고一笑=

突然 傳하는 朝鮮銀行廢止說 朝鮮銀行券을 廢止하리라는 東京電에對하야 加藤鮮銀總裁는 四日正午記者團과 會見하고 全然一笑에附하며 如左히 말하얏다 나는 아모말도 듯지못하얏다 大體朝鮮銀行廢止나 朝銀券廢止가 實現될것인가어쎄하고 커하는소리인지 알수업다 發行權統一은 오래前부터 말이잇던것이나 지금까지 實現되지못함은 至難之事인 까닭이다 지금새삼스럽게떠들 問題가아니오 如斯한 問題보다도더必要한 일이 山가타 여잇지안을가 常識으로 判斷하드래도 朝鮮의金融을 日銀에서 直接統制하야갈수잇는가 그보다는 日本自體의根本的改善이 時急할것갓다 發行權을 統一하라면 兌換할수잇슬째에 行함이正道이겟고 지금가티 兌換停止時에 무슨必要가잇는가 지금은 日銀券이나 朝鮮券이나 조희쪼각이기는 맛찬가지인데 이것을바꾸어무엇하라는 지알수업스며 將來어써케될것이라는것도나는 모르겟다云云

滿洲國態度緩和

日本調停도考慮

【新京電】滿洲國政府는 海關接收問題에關한 日本의太度的調停을 感謝하알어當初의 絶對反對、不讓步의 態度를緩和하고 새로이滿洲에잇서서 主權國인滿洲國의威嚴을保持하는 同時에偉國인日本의 面目을 세우며 또關係各國에도 肯定할수잇는新對策을 考究한結果 具體案을得키에至하얏다

一、中國政府는 大連海關을除한滿洲國 全海關의接收를承認할것

二、中國政府에서 萬若滿洲國의大連海關接收를 承認하면 그주收入은中國政府의收入으로한 그러한境遇에의外海關收入에對한 外債擔保額은中國政府의 負擔으로함

三、中國政府가 萬若大連海關의接收不承認時에는 滿洲國은그 實을取하고 全收入은滿洲國의收入으로한 그러한境遇에는 外債擔保額은滿洲國이 이것을 負擔지아니할

四、全滿洲海關分擔의 外債擔保分全額償還後는 全滿洲의海關行政을 名實共히滿洲國의 主權下에 歸屬케할

爲替市場安定

【東京電】過般來亂高下를 하던 爲替市場이 一日資本逃避防止法施行後 强調로轉하야 安定을示키에至한것은 同法에關한 一省令에疑義가잇는데문이라하나 根本的으로는 同法의效果에依한것으로 財界人은 참아리同法의制定이느젓다고보고잇는터이다 特히日本爲替市場은 國際的思惑市場의感을呈하야 先月末과如함은 大連、上海方面의百數十萬圓의 思惑에依하야 一週間內에 一割以上의動搖를招來하얏는데 中國人의思惑은 資本逃避防止法에依하야 取締할수는업스나 對內的으로 貿易關係外의外貨買는充分히 取締할수잇슴으로爲替同樣의 一材料가除去된셈이오 將來爲替安定上 多少의效果가잇스리라고 보고잇다

如意棒

▲日本의對國際聯盟態度가俄然硬化될고보니이聯盟調査團의東京着가와은모양日本滿洲國承認도調査團出發前에엇더한意思表示가잇슬모양▲滿洲國建設도同調査團入滿前에實現하느라고야단법석이엇겟다建國承認이모다調査團의압장을서게되니滿洲事情調査한다는調査團은이것이나알고가란말이지▲現代政治家늘의하는수작이란모다눈가리고아웅하는수작이다▲滿洲國承認의不可避를暗然肯定코자하는伊太利代表는正直한外닭인가무슨쏙々이가잇는外닭인가왈수업는일▲華製나포레옹馬占山은勢窮力盡하야妻妾에解散命令▲中國은기호데張宗昌이失敗한後妻妾拂下를斷行한일이잇섯겟다▲妻妾解散命令!妻妾拂下!中國二十世紀에서나들을수잇는일▲南鮮地方의旱災가又甚하놉만바라보고사는朝鮮사람의仰天長嘆할일▲米國의國庫赤字는一金二十八億弗也라요지음日本돈時勢로따지면正히百億圓以上이다▲가난한놈의살님사리가튼면破産한지가오래엿겟다

商況 (四日)

朝取株式

前場活躍

前場은△東新이百四十八圓九十錢에同價始場後八圓丁에弛하얏스나阪地高로買物이買物을呼하야百五十圓關門을無難突破하고百五十二圓丁에外지連騰好勢裡大引△大新六十四圓丁에同價寄後傍觀이고△朝新十九圓八十錢에三十錢高寄後同價大引△拓新七圓八十錢에十錢高寄後七十錢으로八圓二十錢에騰大引鼻

後場利喰少押

後場은▲東新이百五十圓八十錢에一圓二十錢下 押寄後一圓四十錢이잇고 一圓四十錢에大引▲大新六十三圓七十錢에三十錢低寄後同價가잇고▲朝新十九圓六十錢大引▲拓新八圓三十錢에寄後同價가잇섯다

百五十圓突破

日銀利下期待

日本第三次利下說이盛傳함에벌어前途去益金利低豫想으로는公債暴騰과財界救濟策具體化期待가强하야東京은歡派一部의上을 動機로 前週末土曜後場에俄然上分此된뒤를이어休日을지난今前場에도買物이機續하야總體的昂騰을演케하야前途期待가漸强하야지고東新은百五十圓關門을突破하는好勢이엇스나下押을바라고前退키를躊躇하는便도不無하야市勢는穩健性이업고압흐로도더욱나갈形勢가濃厚하얏다

株-界-六-感

◇日銀第三次利下說이勤機되어市勢는歡派의前退로上分岐되고今朝東新은百五十圓突破

◇鐘新은九十圓、日産四十圓各關門突破로此所謂總花的活躍

◇低價에팔어는사람들가삼아릴일이나六感子는上分岐를미리警告하야왓셧다

◇얼마까지나올나갈지는速斷을不許하는터이나이번의上分岐가人氣가弱하엿던재료에逆行되던市勢인즉

◇너나할것업시萬人强氣로變하야高價飛付의玉이만어지고過買키外지는좀커림逆轉되지안을것으로보이는바果如何

前途期待强大

市勢輕侮不可

保證準十億圓擴張 資本逃避防止法等이七月一日부터實施되엇고 來臨時議會에 提出될中小商工救濟、農村救濟策等에期待를가지어 低金利時代에入한 市勢에 拍車를加하야 市勢는 드듸어上放되고말엇는데 이『인풀레이손』에對하야서는 米國과가티奏効가업지안을가하는念慮가 不無함으로 아즉도熱中되지안는것이 實情이오 一方으로高價를實浴코저 窺機하는便도不無하나 大阪에질질쓰차 단이던東京이 先鞭을 加하야면커뛰어논點이라던지 또는이미오래동안 鍛鍊에鍛鍊을거듭하얏던點等으로 보아 市勢를반드시 輕侮할수업는터이오 相當한高價가나기오外지는實치못할것으로 보이엇다

朝取期米

前場俄然瓦落

再昨後場阪地二十五圓三十九錢止와共히二十二圓二十六錢에場을止한當市場은一休今朝에入하야阪地初付二十五圓二十五錢인十四丁低를操하고二十九錢인反히四丁高로場을始한後阪地三十三錢의三番同價로二十九錢의小落을報하지 …하야大邱의雨報를擲하고 場側의猛烈한賣物이現出하야 十七錢까지瓦落한다음에反 四十錢外지反騰하엿다가二十三錢으로落止場함을보아〇九錢으로弃落止場하엿다

後場二圓臺割

後場은二十二圓〇八錢에一丁低로 始場後 三節〇一錢에外지 떠러지고 四節〇五錢이엇스나 〇三錢〇一錢으로다시弱하고 二十二圓이 여어저二十一圓九十九錢에 不動止場하얏다

群衆買地場賣

場中限은 思惑米를處分하기爲하야 正米師가賣浚한關係로 大體頭重의商勢를支持하여왓셧고 先限은發會初부터半魁의買人氣가旺盛하야 昂台의買進으로 二十二圓三十錢臺로昂騰하엿셧다 그러나地場側은群衆의買物을消化하는同時에 不知中賣便으로加擔하야 商勢가比較的軟弱하든今朝大邱의雨報를接하고地場側의威脅的賣物이 殺到하야 中限은約四十丁의瓦落을告하고 先限은二十餘丁의落을示하엿다 果然 地場의威力이一雨를見하게되는대에 적어도五六丁의暴落을보기조케告는것가트며 從하야『마바라』의買物은全혀節落되形勢를暗示하고잇다果何如

米-豆-餘-話

◇今朝의瓦落은大邱의雨報를機로하야地場側의賣物이輻湊한外닭이다局部的인大邱의小雨에는樂觀할수업는걸

◇植付도完了하지못하엿슬뿐아니라旣히植付한것은枯死地境이니적어도數十耗의好雨가잇기外에는農家의歎을免치못할모양이야

◇思惑米를가진正米師는期米에賣繫하는가장妙策을計하는듯하나農民의手中에는籾米가無한모양이니도리혀材化하지안흘는지疑問

◇그런데正米界는期界의低落을不拘하고丸キ三等二十一圓外지昂騰하엿다正米의實勢를無視하지는못할테지

◇此에서一段瓦落을告한다하지라도結局大勢는上放하기야말터이니참아리低價買가安心

仁川正米市勢

三等	一石	二一、〇〇
四等	一石	二〇、八〇
同 無檢査地方米	一石	一八、七〇
一等精白米	六十瓩	八、七〇
在來正租	一斤	五、八五
改良正租	一斤	六、〇五

仁川大豆市勢

龍山大豆	一石	一一、五〇
長湍大豆	一石	一〇、九〇
金浦大豆	一石	一〇、六〇
海州大豆	一石	一〇、一〇
天安大豆	一石	九、九〇
		九、八〇

仁川在米減少

本月二日現在의仁川在庫米는玄米四斗入二七、九五三三叺五斗入二〇〇叺正租六三、四叺一九叺와七、五六八俵糯米五斗入四八叺糯七斗入三三五袋外國米七斗入四九〇袋로前週에比하면 合格米은二七、三四七叺無檢査米는九二叺의減少를示하엿다

半年不雨로 憂愁中의 農村

일주일내에 비가 오지아니하면은 내인벼도먹을도리가도저히업다

蒼天은是何心思

조선에서는 언제나 해마다 감을을안이당하는 해가업스며 감을이지나면반다시 비가넘우와서 홍수의난리를맛나는 것은우리가 해마다당하는바이나 대개는오월금음컨에는 모를늦길만한 비는오든것인데 금년에는 의외로 도정월부터 지금까지 지난달초순에 쌍을죽일만한 비가왓슬뿐이오 하지(夏至)가지낸지도벌서 이십여일이오 초복도얼마 격하지안이한 지금까지에는 오지안이함으로 삼남각지는 모를놈기기는고사하고 옴긴 모가말려터저서 일주일내에 비가오지안이하면 거의 전멸될지경이며 엇던곳에서는 먹을물조차부족하야 곤난한곳도 한두곳이안인 농촌에서는 엇지할바를 알지못하고 우사사려중에서오속비가내리기만고대하는중이라는데 이제의 총독부조사에한하면 모내기를 필한면적이이십칠만 사천백오십오정일반보(反步)로총면적의 칠할칠부이리에 상당하다 하니 아직도이할이부팔리가 모를내지못하고 잇는 현상이다 그렇케 모를내임어 느커서는 농가의근심은 마룬하고 도회에서도 간접으로 막대한영향이잇는데 이제각도별(道別)로모옴긴 상항을드르면 아래와갓다

道名	六月三十日現在移秧割合	移秧面積町
京畿	八、四八	一三三、四〇五、三
忠北	六、三〇	四三、七八、七
忠南	七、九〇	一四、〇五、六
全北	七、三〇	一三五、〇五、五
全南	八、五三	一七七、三八、二
慶北	五、〇六	九七、四九五、四
慶南	六、四四	一三一、六三、五
黃海	七、七七	一〇七、三六八、三
平南	九、八六	七五、四九〇、三
平北	九、七七	八七、八四一、五
江原	九、五六	八五、三三、六
咸南	九、六三	五二、五六六、七
咸北	八、二六	一三、九八四、五
合計	七、七二	一、三七四、一五、一

降雨時期는 尙今杳然

三南地方이尤甚

작년보다반쯤이나왓다

그러면금년에 조선안에 나린비는 얼마나왓스며 작년이제와의 우량의비교는 엇더하냐하면 금년일월부터 륙월까지 온우량은이때륙십삭「미리」이것을 작년동긔인오때「미리」에비하면 이때사십「미리」나부족된다 이때사십삭「미리」나부족되는우량도 컨조선에 고로왓느냐하면 그역시 서북지방이만이오고 남선 지방이 대단부족되야 경상남도를 두로 경남、 컨북、 충청 남북도등지는 절반이나 모를못내고 농민들은비오기만 고대하고 물공황에아우성을 친다고 하는데 하늘에서어느째나 비가오려는지 모를옴기지못한곳은물론이왕 모를낸곳도 물이부족으로 모가마른다고 아우성을치고 시시각각으로 시드러가는모를 보는사람의 마음을 안탑갑게하는비가 언케나나릴가 경성측후소의 말은 금명간은 비가올성 십지안타하니 하난님망영을 원망할션이라한다

連日大雨로 稀有의 洪水

십일년만에보는호우 도처교통이두절돼

조선서는 비가아니와서 모를못내는데 이와반대로 일본은물벼락을 맛나구 주남단으로부터 사국 뇌호내하(瀨戶內海)근기디방에는 커긔압의진로로 맏미암아 패연히호르다탁류가넘치여 대방이 문허지고 교량이 류실되고산이문허거 병고현(兵庫縣)에서는 인가가류실되고십수명의 생명을 물에흘여버리는 참사가속출하고 산음선(山陰線) 삼궁선(參宮線)등은 불통되고 선박의 결항아지곳곳이 생기엇다는데 대판측후소의 관측에의하면 삼십일 오후아홉점오십오분부터 퍼붓기시작한 것이 이일오후두컴까지 약사십여시간에 때삼십오미리(한평에 이석사두팔승이합)가오고 이우량을 과거에 비교하여보면 명치이십구년 팔월삼십일에 이십사시간동안에 때칠십사미리칠이엿고 최근에 잇서서는 대정십일년 칠월사일천후의 홍우이래 열한해만의큰홍수라한다

市內社會事業

오십구개소

경성부사회과(社會課)에서는 최근에부내에 산재한관공사립(官公私立)의사회사업긔관을 조사해본결과 그수효는 오십구개소인데 그가운데서 관영이다섯 공영이 이십사개소 사설이 삼십개소이라한다

本町棄兒 犯人渺然

녀자는방면

본정(本町)오정목유아시체사건에 대하야는 귀보한바와가티 일본인 녀자한명을 협의자로 인치하야 본정서산구(山口)형사부이 취조를 게시하여오든중 그녀자에 대하야는 아모혐의가 업게되여이일저녁에 석방을 하엿슴으로 이사건은 더욱더미궁에 싸지여 동서에는 다시새로운방면으로 맹렬한활동을 개시하고잇슴으로 이수수꺽기도 불일내로풀수가잇슬것이다

兵庫縣一帶는 目不忍見의慘狀

사망자와행위불명다수

삼십일밤부터 오는비는 그칠줄모르데 계속하야 내리부어 병고현 미낭군미낭천(兵庫縣美囊郡美囊川)은크게 범남되여삼목정(三木町)은태반이나 가옥이 침수하여 사자(死者) 십륙명행방 불명사십여명 이고 녹아도(鹿兒島)등지는 일반칠천여명이 컨부이충집 뚝대기에올나 안커겨 우피난하엿는데 련이틀동안이나 밥을 못먹고 공포에싸힌 부녀자들은고롱만잇다한다

江東서 古墳發見

륙백년전것

【평양】 강동군삼등면봉의리(江東郡三登面鳳儀里)에서륙백여년전의 솟(鼎) 두개가발견되엇다한다

지난달이십구일동리삼이삼번지증컨등록(增田得六)의집을 개축코저 쌍을파다발견하엿는데 이것은 발이세개가달려잇고 노피가 일척삼촌오분 목(口幅)이 구촌오분이되는 퍼지안흔솟으로 컨하는말에의하면 컨에그곳에살든 중국인이 무더둔것인듯 하다고한다

纛島에 男子屍漂着

목욕타죽어

일일 오후오시경에 부외뚝도(纛島)『쑬프장부근에 잇는 웅덩이에서 삼십세가량된사람의 시체가 떠잇는것을 지나가든 사람이 발견하고뚝도주재소에고 발하엿는데 동소에서는 서원이 출장하야조사한결과 그죽은사람은 뚝프장인부( )로 뚝도면상리(纛島面上里) 사십이번지 리황복(李黃福)(三〇)으로 판명되엿는데 당일아츰에 그곳에서 목욕을하다가 그와가티무참히 빠저죽은것이라 한다

拳銃青年이 警官에 放銃

어대진서총출동수색중

犯人踪跡은杳然

【함흥】 지난륙월삼십일 오후삼시쯤하야 함북 경성군주남면주 촌후장(鏡城郡朱南面朱村後場)에삼십세커후가되어보이는 청년일명이 우시장(牛市場)거리 박모(朴某)의집에 들어와 오는장날까지 삼일간만 류숙하야 가겟다하매주인박씨는 자긔처(妻)의 병으로인하야 머믈을 거할수업다고 설왕설래하든관에 주촌후장경찰관 주재소(警察官駐在所) 경관이명이 동면 수남동(水南洞)에 출장갓다가 돌아오는길에 마츰컨긔 박씨의 집에들어와 본즉 그청년의 거동이 수상함으로신원(身元)을뭇게되자 별안간 컨긔청년은 문바그로뛰어나가서 달아나기시작함으로 두순사는 힘을다하야 추겨하야 볼과이십간내외의 거리에 이르자뜻바게컨긔청년은 돌연몸을 돌처서며 권총을두방이나 발사함으로추격하든 순사이명은 당황하야 즉시주재소에 달려가서 어대진(漁大津) 경찰서에 컨화로 사실을보고하자 이급보를접한 어대진서에서는 각주재소의 응원을어더 오륙십명의 정사복경관으로 밤을새워가며 엄탐중이나 그청년의 종적은 묘연하다한다

南京共産黨員 滿洲國赤化計劃

목하소재수색에전력

모처착컨에 의하면 만주국(滿洲國)적화를 목적으로 국민정부의 탄압을버서난 남경(南京)공산당원의 일당이수명 일적에 컨진(天津)으로부터 영구(營口)에 상륙하야 비적(匪賊)의 소굴인 연중(綏中)방면으로 잠행한형적이 잇슴으로 일만(日滿)관헌은 극도로 긴장하야 목하 그일당의소재를수사중이라한다

平壤에大火 十餘戶全燒

밤중이라극히혼잡햇다

損害約三萬圓

【평양】 어일오후열시오십분경에 평양부 수옥리(平壤府水玉里) 십륙번지에서 불이나서 사동을컨소한후삼일 오컨일신반경에 진화하얏는데 손해는 약삼만원가량 이라하며 원인은방금 조사중이라는바 발화한가옥은 최락문(崔樂文)홍종관(洪鍾觀)림종호(林宗浩)심룡택(沈龍澤)등사명의명의으로잇는것이라하며 금번연소된 상컨은 다음과갓다

▲五六商會▲青年洋靴店▲三丁自働車部▲常信商會▲平安家具商▲廣昌商會▲百貨店▲鮮興商店▲米穀店▲第一氷水店

麥酒로 詐欺

냉수를느어 돈밧고판다

지난이일 오후팔시경에 브내 중림동(中林洞)백십륙번지 잡화상문범초(文凡初)의방에 년령이 십칠팔세쯤되여 보이는 조선의복을입은 청년이 차커와서 자긔는맥주회사사원이라고하며 맥주일타(一打)를 주문를맛타가지고 가셔 동십시경에 전긔‖주를배달하려와서 그대금 삼원오십컨을 바다가지고갓는데 그후 얼마지나지 아니하야 동잡화뎜엽에잇는 향림원(香林園)식당에서 세루한병을사가지고갓다가는 즉시 도라와서 지금 사간맥주는 맥주가아니라맥물이니 웬일이냐함으로 그럴리가 잇스랴하고 나마잇는 다른맥주를 조사하야본즉 그것은 과연모다물인것이 판명되여 문씨는 깜작놀내여 즉시 소할서대문서에 게출하얏다는데 요사히 이러한수단으로 사긔를하는 자가종종잇는 모양으로 그혐의자도 한명을 체포하얏다한다

官紀肅淸反面에 公金橫領이續出

경북도관내두곳에서

일은바『강긔숙청』을비웃는관리의부정사건은 경성의토목담합사건이、큼직하게세상의 그림을밧는터이어니와 경북도내에는 공금횡령이셋 넷 경산군청에는 얼마컨의 김정우(金定禹)란서무게 고원의 공금일천오백원 소비사건이 간신히 쓰을보려하는데 또다시학교비 사무원 권녕직(權寧稷)이 금팔백원을소비하고 일일 소할경찰에 구속되엇다 한다 여긔는모 군속도관련이 잇는지 벌서사표를제출 하얏다하며 이에대처하야 칠곡군에도 분삼(北三)면회계원 허천득(許天得)이 삼백칠십원을가산(架山)면장이폐도(廢道) 커분한토지를 팔아먹은일이발각되어 각각 소관서에 구속되어 취조중이라한다

맥주먹기에 세계신기록

금주국인 미국에서 독일하이델베르히에 류학중인 미국인약크、로빈스君(스물한살)은 요즘맥주먹기에 세계적기록을 확립하얏는데 동군은한입에맥주일승삼합(一升三合)을십삼초동안에 쏙드리켜서 아주싸지의세계기록십칠초를 깨트려버렷다는바 공부하라고 보낸부모의마음은 모르고 당치안은기록을 지엇다 할것이다

逐日發展의談合事件 現職府議員檢擧

참고인도십여인이나취조햇다

密議頻頻의本町署

본청서 토목담합사건은 토목협회장(土木協會長)황정초태랑(荒井初太郎)씨를삽작일일동서에 호출하야 참고인으로 엄중한취조를밧게한후 일단귀택케한후부터 재차、활동을개시한동서는 시내영정(榮町)컨용산의용소방조두(前龍山義勇消防組頭) 현경성부회의원(京城府會議員)추산독차(秋山督次)를 비롯하야 후등호웅(後藤虎雄) 진컨신차랑(津田辰次郞)창산모(倉山某)등십수명을 인치하고 엄중한취조를개시하엿다 재작삼일에는 일요임에도 불구하고중촌(中村)서장이하 오(吳)사법수임 성긔(星崎) 수사계주임 박곡(道谷) 형사부장이 서에출근하야가지고 형사대의 동치서주를감독 독려하는 일방 조서작성을 급속히 진행하고잇다 그런데 케사차이후에남어이잇든십칠명과재작일이래새로히인치된 십수명은 취조계관의심문에 대하야 일언일구를 대답지아니하고 사실내용을숨기며 컨우사실을 부인한다고한다 따라서 사건의진컨을 금하하는 동서에서는난잡한문케를 엇지할지몰나 사법주임이하가 서장실에 모히어 청오부터 일시간여의 밀의를거듭하엿는데 무슨새로운 단서를 어드런관계는아니요 다만사건의 급속진컨을 협의함인것갓다고한다

羊頭狗肉의 假面이暴露

의원자신부터반성하라

府民背信이如此

금번사건에 검거구속된 부회의원들은 평소 부회의、부의장(副議長)또는 부회의원 상임위원(府會議常任委員)들의 요직에잇스며 부정(府政)의 실태를 배격하고 부정의공정을 주장하야 적어도 부행정의 확청을 절규하든 표리부동한 악덕의부호의원들로써 금번의옥 사건에 마츰내그죄상이 폭로된것이다

그러한 부회의원은 비단그들뿐아니라 현재 자가의 무죄를 가장하고잇는 부회의원들중에도 그가튼 부정자류가 업지안타고 경찰은 비상한주목을하고잇다고한다

그리하야 그들의 소위부민의 선량이라고 선출한사십만부민들로서도 금번 의옥사건의폭로로─ 그들에대한 일말의 긔대조차 감쇄되는동시에 경성부 당국자들에 대한신임도 나날이 감소하야 비난이노파갈뿐이라한다 이로말미암아 장래 부행정상에 막대한 악영향이잇스리라고 상급관청에서는 자못중대한 문제거리가 되어잇다고한다

咸州線附近에 列車顚覆을計劃

사립학교생수명을체포

【함흥】 귀보와가티함흥역(咸興驛)을중심으로렬차방해사건(列車妨害事件)이빈발함으로 철도와경찰량당국에서엄밀한경계와 감시를 계속하고잇든바 지난육월이십이일함주군주서면십이리(咸州郡州西面十二里)구역내선로(線路)○○○에돌을 놋코렬차진행을 방해하엿슴으로 렬차를세우고 장해물을 치운후렬차가진행하엿든바 그후 이십칠일또 다시그지구안(咸興驛距一哩地點)에서 선로감시원이 ○○을선로 ○○○에 ○○것을 발견하엿다 소환함흥서에서는 범인을 수사한결과십일두사건의 진범인인 열살로부터 열네살까지의 함주군주서면 모사립학교(咸州郡州西面某私立學校)의어린아해들을 검거하야취조중이다

反帝同盟梁珣模 懲役一年半言渡

간도공산당두명도언도

중국북평반제동맹원(北平反帝同盟員) 량순모(梁珣模)에 대한치안유지법위반의 판결공판은 사일 경성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개정되어 산하(山下) 재판장으로부터 징역일년육개월(四十日未決通算)을 언도하얏는데 검사의구형 징역이년육개월에비교하야 일년이 경하다

◇또동일 동법정에서 간도조선공산당원 최신영(崔信泳)김룡운(金龍雲)량명에 대한치안유지법 위반사건도 역시 산하재판장으로부터 각징역이년(未決通算百二十日)을 언도하얏는데 이것은 검사의구형이년반에 비교하야 육개월이경하게판결되엇다

萬寶山事件의 一週年은無事

경찰의경개만엄중할뿐

만보산(萬寶山)사건에서 발단이 되여가지고 조선의컨지를 진동케하든 중국인과의 충돌사건은 금삼일이 만일주년 경성에서의 충돌되엇든날이다 작이일십이시에 인천(仁川) 시가에서 최조의봉화가일려난것을 비롯하야가지고 금일은경성 오일은평양(平壤)등각지로 료원(燎原)의불과가티 불붓든작년 이만째가 다시도라왓다 경긔도경찰부에서는 미리부터 시내각서와 관내각지에 수배하고비상경계중이엇는데 아직까지는 아모런사건도업는 모양이며 시내각서는 금일요일에도 고등계형사가 총출하야 경게의임에중당하고잇다

交通事故二件

박로인은중상

삼일오후네시십오분에부내 산수정(山手町)삼십사번지박치학(朴稚學)(六六)이란로인은 서대문이정목이번지압길에서 황금정으로가는컨차일백륙십이호에 충돌되어륵골(肋骨)이 타수개처에 골절(骨折)이 되어 혼수상태에 이른것을적십자병원(赤十字病院)으로더러다가 응급치료를하야 생명은구조되엇스나 컨치하기까지는 삼주일이상을 요할터이라하며 원인은 컨차길을 가로건느려다가 컨차에 부다친것이라한다

◇또동일오후네시이십분에는 종로삼정목구십번지압길에서 부내권농동(勸農洞)일백륙십사번지곽봉학(郭鳳學)(三〇)이 컨차길을가로건너다가 한강교로가는컨차일백오십사호에 충돌되어 입술과 눈등에 상처를내엇다한다

公判에廻附한 釜山勞組事件

칠일에는공판을개정

【부산】 지난오월일일메이데이 긔념일을비롯하야 부내공장지대에 다수한격문을 산포한적색 로조재건회(赤色勞組再建會)의 관계자량로산류복길김명룡차길문(梁鉉山、柳福吉、金命龍、車吉文)등 네명에관한 보안、출판 법위반피고사건은 그간 부산지방법원검사국에서 취조를 마치고 재작일일 동법원공판에회부되엇다는데 공판은 오는칠일이라한다

釜山署 突然活動

【부산】 부산서고등게에서는 수일컨부터돌연긴장하야고무공장지대를 경게중이드니 지난이십팔일엔 남선 부산량고무공장에서 직공김인영(金仁榮)(三)외이명과 녀직공 김은례김성례(金恩禮)(二〇)(金聖禮)(一八)등합오명을 검속하야두고 취조중이라한다 내용은 탐문한바임금인상운동에파업을 선동하랴다가 미연에발각된것잇라한다

朝鮮「호텔」도 民衆本位로改良

민영후에이것이첫사업

종래철도국직영으로 잇든 조선호텔이 금년사월에 민영으로 변경한이후로 재계의불항으로 말미아마 려객이격감되어 그러지아니하야도 수가맛지아니하야늘적자(赤字)를 내여오든것이더 욱더적자를 내는터임으로 그대책으로 여러가지 케도를 개혁하야경업비절약에힘을써왓스나그래도여컨히적자를면할수는업는황편임으로이현상으로계속된다면 결국은 경비곤란에싸지‖싸지게되리라하야 종업원간에는 큰불안을 이르키여오든중 이란관을 돌파하기위하야 종래에는 일부록권계급만의 오락장으로만 되여 잇든동호텔에서는 컨반적으로 료금감하를단행하야 일반대중적으로 진출하기로되엿다 금회에 감하하기로된것은 식사와연회비뿐으로 아죽숙박료외지는 감하되지아니하엿는데 대감하기컨의 료금은 조식(朝食)에는양식(洋食)은일원칠십컨화식(和食)은 일원오십컨하든것을 양식은 컨연정시(定食)은 폐지하고일품(一品)료리로 변하엿고 화식은 일원으로감하하고 주식(晝食) 정식이원오십컨을 이원으로 석식(夕食) 삼원을이원오십컨으로감하하얏다 이것은 홀로조선호텔에 만한것이아니고 동계통으로 잇는 부산(釜山)평양(平壤)신의주(新義州)와 기타 장안사(長安寺)온정리(溫井里)등오개소의 호텔에 도다가티 감하하엿다 이와가티하야 압호로 일반대중적으로 객을끌려고하는것이며 또한 연회다화회(茶談會) 가튼것도될수잇는정도로 주최자의 편의를 도읍기위하야 최커료금으로 수응할터이라한다

휘파람

△여름이 압호로 오랴하는이째에 조선으로는 선들선들한 가을 바람이 분다 △「스피」드세상이라하닛가써월도「스피드」화합인가 △모기장에 불이붓허 형케가 타죽엇느니 모자가 화상하엿느니 하는참사가쏘시문에 쩟득쩟득뵈인다 △이써위사실은 한해여름에도 멋번식나는 지모르는일이다엇지면 이러케 미욱한쑬을 보지안케될고 △조선에는 가믐으로 소동、일본에는수재로소동、소동소동하닛가、공연히 마음이송구하다 △그러나 하느님이명철하시니잇다 나래일에라도 이소동을‖가라안처주시겟지

鮮人外務係募集

一、鮮人外務係 二十五歲以上 參拾名

一、掛鐘時計及懷中時計、蓄音器、月賦販賣事業外務係에從事함

右至急募集하오니希望者는本人履歷書携帶來談하라

(但市內에確實한保證人貳名以上을要함)

京城本町二丁目

標準時計 Ⓜ 村木時計店

電本四七一、四七二

簡易한食事와大小宴會얼마든지 下命에酬應합니다 配達도迅速히합니다

黃金町二丁目角 日本生命ビルヂング三階

花月食堂

電話本局 二一五七、三八六〇番

新案特許=到處著名電氣商會雜貨店에販賣=

電氣 다리미

一式付特價一、八〇

堅固耐久、優美安全

朝鮮服、洋服兼用

其他一切電氣器具、材料特價大提供!

京城鍾路三丁目六五(振替京城一一三〇八番)

型錄進呈 特約歡迎

製造元 東亞電氣工業所

恩給

極底利立替 年額及年齡通知事

京城笠井町一〇五 朴商會

價格型錄進呈

振替京城四六六〇 電本1226 611

(但病院醫師에限하야型錄進呈)

京城長谷川町 高野製作所

七月五日부터

新舞台夏期公演第二週

破格의大衆料金

◆朴英鎬作 海洋活劇 方向轉換 全一幕

◆成光顯作 諷刺劇 世上은이러타 一幕二場

◆梁白明作 大喜劇 닭싸홈이 全一幕

◆幕間 獨唱과歌謠

豫告 洞里싸홈 全一幕

새길을차저서、埠頭의半時間、카페行進曲、街頭醫師、二八歌、댕겨나온뒤、소곰、出發、未練의밤、死線을박차고、바람개비、어夫、烽火비칠제、새靑春情、든子息、春香傳、兄弟

高級常設 團成社 (電話光九五九番)

七月二日부터朝鮮映畫大會

主解說者唯一의 合同熱辯

一、大邱大東映畫社特作 原作 金英㷖

朝鮮映畫 도적놈 全九卷

監督…尹蓬春 出演…朱仁奎 尹蓬春 河小楊 李明淑

二、大邱綠星키네마社特作 原作…脚色…李雲英

바다와싸호는사람 全卷

出演…朴齊行・羅雄・徐月影 金蓮實・外多數

大京映畫洋行作品 撮影…孫勇進

守一과順愛 全九卷

監督…李龜永 出演…李慶善・金蓮實 朴齊行・尹蓬春

第一劇場 (電光一七五五番)

七月一日낮부터五日間

朝鮮興行株式會社直營一週年紀念興行

階上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階下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파라마운트社特作無發聲映畫(日本版)

내가죽인사나희 全九卷

監督 에른스트루비리

主演 라이오넬바리모어 낸시카롤 휘립푸스홈스

◇파라마운트社特作無發聲映畫(日本版)

엉터리장사 全八卷

監督 노만크라드

말크스四兄弟主演

實寫와漫畫가잇습니다

次週=지길博士와하이드

豫告=무엇이그女子를죽엿는가 愛國者慘劇의埠頭

朝鮮劇場

四日ヨリ特別短期三日間公開

發聲映畫宣傳のため特に二十錢均一公開

帝キネ特作時代劇 森田京三郎監督

朱鞘小姓 前篇六卷

市川百々之助望月禮子主演

暑熱を吹き飛ばす痛快無比の大時代劇、六代目の舞臺劇研辰の映畫化、監督渡邊新太郞 新興キネマ特作時代劇 河津清三郞主演 望月禮子吉頁寺光助演

旅の研辰 三百六十五日 全十卷

パラマウント映畫會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ノーマン・マクラウド氏監督作品

グルーチョ・マルクス氏ゼッポ・マルクス氏チコ・マルクス氏ハルポ・マルクス氏 四人兄弟主演

發聲映畫 いんちき商賣 八卷

新興キネマ 封切場

中央館 永樂町 電本

貯水量이半減된 安邊水組의貯水池

지금상태로논삼사일내외에 수원이전부말너버릴것가태

◇數千農民의農作이問題

【안변】 함남안변(安邊)에잇는 안변수리조합(安邊水利組合)에서 지난일일새벽부터돌연히 관개수(灌漑水)를 단코 내려보내지안흠으로 관계농민들은 동조합사무소에 쇄도하야 물을내려보내달라고 강경히 항쟁한다함은 긔보한바인데 안변수리조합은 천여정보의 몽리구역을 상대로일때 칠십만원이라는거대한금액을 드려 맨드러노흔것인데 아즉도 모를 못낸곳이잇슴에불구하고 상방저수지(貯水池)에 물이거의고갈되어 그와가티 단수外지단행하게되엇다는바 관계농민들의 적극항쟁에 동조합에서는 할수업시 지난일일밤중부터 물을 내려보내준다는데 동조합발표에의하면 저수디에는 개답천에 저수량이 오십사척이엇섯는데 지난일일에는 저수량이 불과이십사척이라한다 지금상태로는 불과삼사일내외에 저수지에 물이전부말나버릴터인바 관계농민의 천도가 매우 참담하게되엇다한다

賦課의不公平으로 梁山에戶稅滯納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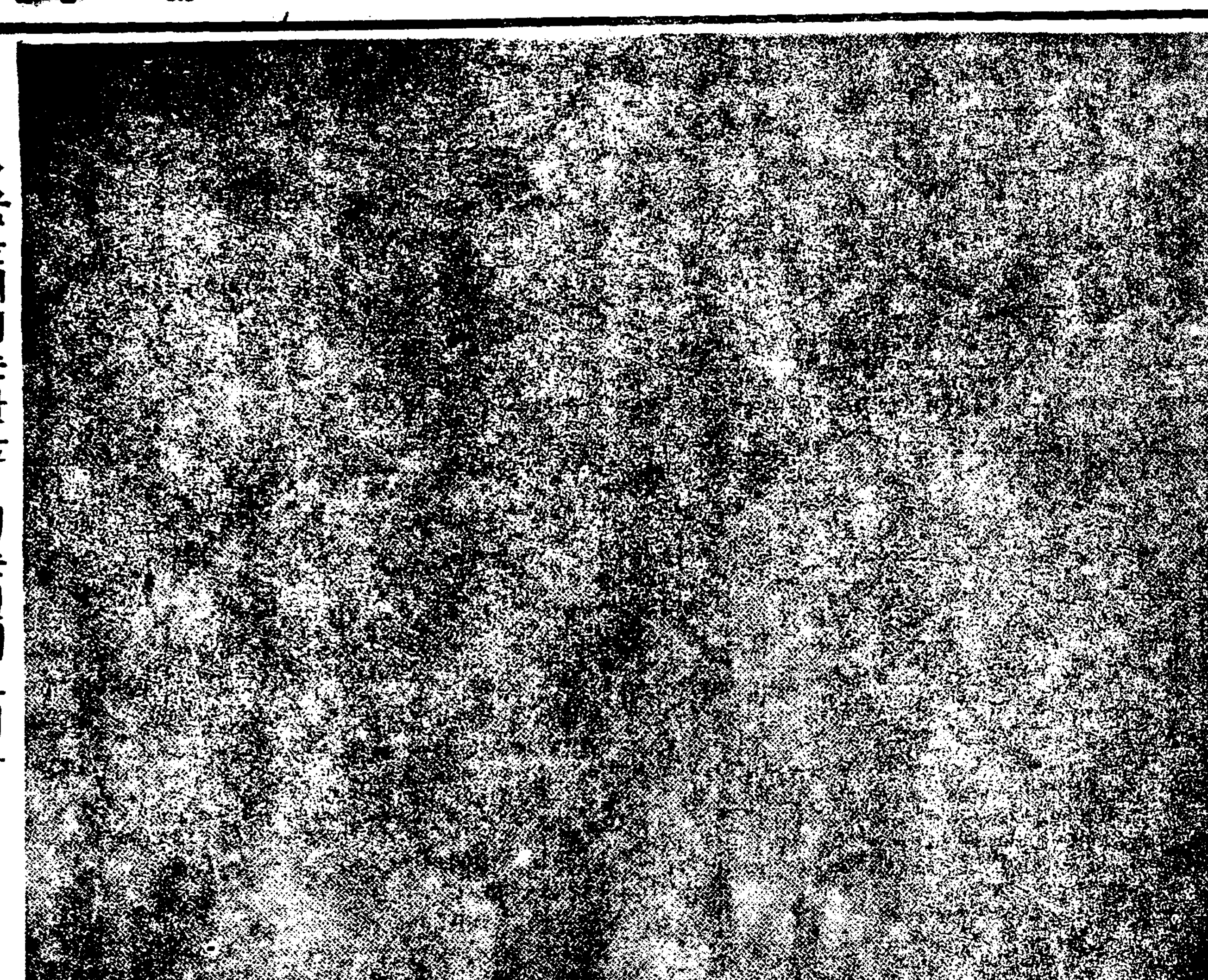
百餘名에達한다

【량산】 경남량산(梁山)군 량산면에서는 호세납긔를 지난지월여가되는 오늘에 체납자가 백이십칠인이나 됨으로 면당국에서는 그처리에 크게 낭패하고 체납자 금년부담액(負擔額)은 례년에비하야 오륙배심하면 팔구배가되는 종래에업든 거액이라 도저히감당할수업슴으로 면당국에 사정을 여러번호하얏스나 호리의 동정이업다하야 면당국의 부과(賦課)불평에 대한 원성이날로노파가며 직접면행정에 간여하야 료리의선악을비평하는 면협의원(面協議員)의 불철저함도 금번의 불공정한부관의 간접적 원인이라하야 말성이 만흠으로이사실을 목도한협의원 일동은불평이 만만하야 지난이십칠일비공식으로 면사무소에 집합하야 부과의불공평한것을 일일히 지적하야 면당국의과실을 폭로하고 당연히 공평을결한 부과는 다시고처서 부과하기를 요구하고 만일면당국으론서 반성치안흐면 최후의총사직까지라도 주저하지안흘 태도임으로 면장은 망지소조하야 엇지할줄모르고 다시고려한뒤에 부과의 개정여하를확하답겟다고 함으로협의원 일동은 깁히 고려하기를부탁하고일단돌아갓다한다

朝窒의人夫 江上屍化

일개월만에 비로소알어

【신흥】 본적을 평남순천군 신창면송산리(順天郡新昌面崇山里)에두고 조질발전공사지인 함남신흥군 영고면동흥리(新興郡永高面東興里)에와서 로동생활을하는윤익언(尹益彥)(六)은 지난류월 이일에 천긔공사의청부업자 인서송조배하 등정(藤井) 사무소에 로동한전표를 타려간것이 날이저물도록 집에 도라오지아니함으로 그의 아버지되는 윤상준(尹相俊)은 매일가티 등정사무소에가서 차저 내라고 힐문하며 탐색하야오든터에 륙월삼십일에는 동흥발전소에서 운권을 잠간쉬이게되어 방수구(放水口)에 물이갑작이줄어짐을 딸하서 강물에 잠겨잇든 윤익언의 사체가표면에 나타난것을 부근에서일하든 사람들이 발견하야당지 경관주재소에 고발하야 경관이 즉시현장에 출장하야사체를검사하는 동시에 진긔청부업자 등정과 그의 종업원 길포(吉浦)등을 신흥서에 인치취조중이라한다.



◇꿈눌거리는한울! 비는언제오려나?

面長의美擧

빈민을구제

【전주】 전주정읍군태인면장 림창주(全北井邑郡泰仁面長 林暢周)씨는 본면장으로취임된후로부터 저반면행정에 전력을다하야 그처지이 심노마 대함으로 일반면민에게 만은 신망을 바다오든바 금번에또 면내주민중춘궁의 여파로 긔근에 쪼들여울고잇는가련한 면민백삼호인원(人員)일천륙백명에대하야 이를 구제코저 면내유지동에게 동정금을을 모집하야 지난 오월이십일일에 제일차로 고량미삼십삼포대칠승오홉을 분배한후 지난 일일에 이제이차로고량미(高粱米)삼십삼포대팔두구승을 매입하야 일인평균 한되서홉식분배하야 그들의초로와 가튼생명을 어여주엇다는데 이일을안 일반사회에서는 퇴면장의 개룩한동정심을 칭송함을마지아니한다

元山에火災

선교사집이 전소되엿서

【원산】 일일오후십시경에원산부영정백사십칠번지(元山府榮町百四十七番地)에 소디스트교회의소유인 이층벽돌집에서 발화하야 붉은시시각각으로 사면에타오르기를 시작하얏는데 이건물이 원래놉흔곳에잇는데다 용수의 편의조차업섯슴으로 소방조원들도어떠케손을 대여야 조흘는지알수업서 다만타는대로 내버려두기째문에 이 건물한채가 전소되고 십이시반경에야 겨우진화되엿스며 다항히 연소될번 건물도업섯고 또는 인축에도 아모피해가업섯다 이 집은 원래빈집으로잇섯다가 선교사 「에쓰、에ㅣ、스츄와ㅣ드」씨가 근일에 여름을게되자 이를 증창하다가 필경불이나게된것이라는데 목하 원산서에서는 그원인을 취조중인바 발화의원인은 오름에불을 과히땐관게인듯하며 손해는약 오천원인바 이건물은 원래화재보험에 오천원을 드러잇섯스나 일천에과간이만료되엿다한다

苗坂은龜裂 移秧은겨우一割

沃溝羅浦面一帶의旱騷

【군산】 한발(旱魃)로인연하야인심이흉흉한바그중에도 군산지방과 옥구군라포면 일대에는 이앙기에잇서서 오래동안의 한발로인하야 직접공포를 갖기게되엿다 특히알헌재의 이앙상항을 보건대수리의 편이업는 산간군에속한지는 근일한재로 인연하야 모판은 파렬되고이앙은 겨우 일할에 불과하야농민은 한울만 우러러원성이자못창천하야인심이매우흉흉하다 :고하

壹萬圓豫算으로 無産兒童을爲해

全州天主敎에서 校舍擴張新築中

【전주】 전북전주천주교(全州天主敎)에서는작년부터교인의자녀질과 무산아동을 위하야 강습소라는 명칭하에남녀아동 삼십여명을 모집하야 보통학교과정을 교수하든바 년령초과 수업료문제로 입학치못한아동이 격증하야 대대적으로 확장할것과 봄원한장래에 학교다운학교를 만들고저 모든사업 설계서를 작성하야 가지고 대구본부에교섭한바인가되어 지난달 상순부터 공사를착수중이라는데 그설계서에 의하면부지제외한 일만원의 예산으로 일천오백이십구평의 부지에 건평백십평의교사로 이동을 신축중이라한다

飢餓의恐怖에싸인 咸南僻地의細農

四千七百名의목숨이 風前의燈火가티不安

◇當局은엇지하려노?

【원산】 초근목피(草根木皮)로 그날그날을 연명하야가는 긔근동포(饑饉同胞)의 참상을 보도되야 듯고보는사람의 신경을 아푸게한다 그중에도함경남도덕원군풍상풍하량면(咸鏡南道德源郡豐上豐下兩面)은 작년의흉작으로 인연하야 그들의 궁박한눈물겨운 참상은 루보한바이나 장진군신남면 금중남면(長津郡新南面及中南面) 지방에 도작년의 농작물이 약륙할이상이나감수되야 현재칠백팔십삼호의 사천칠백명의동포는 벌서식량이썬어진지가오랜바 금일까지초근목피(草根木皮)로 겨우실낫가튼생명을 보존하야 왓다 저간에당국의 구제와유지의특지로 사라왓스나 이압흐로는 그역 도리가업서사선에서 헤매일뿐이며 근일에는남녀로 유가 산으로모혀들어약작한 죽엄의길을 바라보며일방으로 그들은 런서하야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하얏다한다

하여이저수지가 말으게됨은 수십년 내처음되난한재로 부근농민은 수운에 싸여잇다한다

各地의旱騷

요새의 일긔는나날이더위 갈뿐만안이라나날이 양우를 하는모양인지마는 역시비는 오지안이하야 남선일대에는 한발이침범하야저수지가고갈하기를시작하엿스며 또한묘판 이구렬되여남선의 농민들은 한울을우러러비가내리기를축원하는현상이다 특히군산부외에 잇서서는논에 물이말러나 날이구렬되는참상에잇다

萬年不涸의 沃川의佳化池涸渇

數十年以來처음되는 今年의旱魃로因하야

【영동】 충북옥천군옥천면읍내(忠北道沃川郡沃川面邑內)에잇는가화지(佳化池)라는 저수지에는 저수되얏든 물이 전부고갈되야상전화(桑田化)하얏는데 이저수지는자고로유명한바 이저수지로 인연하야 수백두락의 전답을 경작하고도 오히려 나마지가 잇슬만치저수량이 풍부하얏섯는데 금년봄이후 대한재로 인연하야 그와가티 물이말너

永同에선 祈雨祭

지난二日에

【영동】 충북영동군에는수개월동안을두고 계속되는 한재로인하야 농가의손해는 물론이오일반의 인심은극도로 흉흉하야이온화책으로 고래관습에의지하야 기우제를거행하게되엿는데 금월이일영동시장에 서는시장을옵청루(挹淸樓) 강변으로 이전하고 각농가에서는 극히정성을다하야기우제(祈雨祭)를거행하고잇다한다

群山의旱魃 苗坂이

龜裂되엿다

【군산】 전라북도에는오래동안계속하야 오는한발로 인하야 수리관개답(水利灌漑畓)외에는 천부묘판은 구렬케되엿는데 십여일권에겨우삼십미리올되는비로 인연하야 간신히이앙한것도 천부그갈상태에 일르렀고 재래천수답도 큰비가오기전에는 이앙의가망이업서물싸홈으로 매일인심이흉흉하다고한다

朝鮮男女自轉車競技大會

主催 金仁自轉車商會 金元自轉車商會 江崎鐵工所平壤分工場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大會事務所朝鮮日報社平壤支局上層)

時日 七月九、十日(土曜日兩日間)

場所 箕林里公設運動場

(入場料十錢均一)

毒婦의猜忌에 犧牲된「어린목숨」

동세의생남을시긔코 양잿물로독살코마러

【광주】 자긔는 딸만 세명을 생산하얏는데 동세는아들(男兒)을 생산한것을 시긔하야 양재물을 갓난아이에 게먹여서 죽인사실이잇다 완도군군외면신학리(莞島郡郡外面新鶴里)사는 김서산(金瑞愼)의 장자종성(鍾盛)(三三)아는그안해 오유덕(吳有德)(三二)파사이에 딸세명을 나코삼형제간에 아들이한명도업슴으로 원집안이눈격정을하고잇던바 지난유월칠일에는 권과종성의 셋재아우종권(鍾權)의 안해가 산애애를 나핫슴으로 원집안에는 화긔(和氣)가쇄돌게되엇다 이째에 맛며누리 오유덕은 은근히 조치안케생각하는 동시에 그영아가 점점장성하는 째에는 자긔가 나흔게집애들이 종래에 밧고잇던집안사람들의 총애가 그에게로 올마갈것을생각할때에 불가튼 질투심을것잡지못하얏다고한다 이런생각을 가지고잇는 오유덕은 늘긔회를기다리고 잇던중 지난달이십이일에는 집안사람의눈을피하야 어린애에게새알(雀卵)만콤한양재물덩이를먹여서 죽여버렷다는것이 발각되어 그어린애의 시체를해부하는동시에 경찰에 검거되어 엄중취조를밧는중이라한다

自己所有土地를 典當잡혀貧民救濟

谷山의全金兩氏의美擧

【곡산】 황해도곡산군이녕면(谷山郡伊寧面)권신원(全信元)(四三)김용희(金用熙)(三三)량씨는 현의하고 자긔소유토지를 당지신평금융조합(新坪金組)에저당하고 금사백원을 독재하야 속미(粟米)오십여포를 사다가 궁민이백륙십여호에 배급하얏다한다

黃州서 救濟策研究

【황주】 전조선각지방을물논하고 궁민이 늘어감을딸하풀님사귀와 나무뿌리로 겨우연명을 하야간다함은 루보한바어니와 이대책을 각지방에서 강구하는중인데 황주에서도 각자단도 일일히 궁민조사에 착수한바 먼저 황주군읍십삼면중에서 군청소재지인 황주면 경찰서등의 중심지인 황주면부터 조사한바에의하면 면민대부분이 궁민임은 다시말할것도 업스나 궁민중에서 그날그날연명도 막연한 사람들을 조사하야 그구제방법을의론할터이라고한다

極貧漁民爲하야

채금면제

【성진】 함북성진군학남면례동(城津郡鶴南面禮洞)윤충영(尹忠英)씨는 당지에서 온유비제조업(鰮油肥製造業)을하는바작금수년동안 함북지방의 흉재와일반재계의 불항으로어민의 생활이 극도로 참경에이른바 권귀윤씨는 이다음을 동정하야 칠천원의채권(債權)을 탕감하야주엇다것고한

水利의不利로 六十町이나되는「논」을

폐답할지경에잇다

◇小作人은將奈何?

【영변】 평북영변군소림면룡강수리조합(寧邊郡少林面龍江水組)은이백정보를 몽리구역으로 한수리조합인데 작년에도 삼십정보가량에 수확을 전부일허버렷든바 금년에도 삼분지일의오십정보가량은 폐답케되엇다고한다 작년과 금년을 합하야백여정보의토지가 폐농케된 원인을 조사하면 본시몽리구역에 편입된이백정보의 토지가 수리사업에 적당치안흔 토질임으로 벼가잘되지를안는다하며 모래땅(沙地)임으로 삼십분사이에 한자물이라도 습여업서지는外닭이라는데 지주와 소작인들은 각관계당국에 진정할원이라고한다

大和町屍體 自殺로判明

유서가잇다

시내대화정(大和町)헌병사령부뒤송림속에 서괴상한 사체를 발견하얏다 함은긔보한바어니와 그후본정서에서는 산구(山口)형사부장이 현장에 급행하야 경성헌병대의 무관과가티 엄밀한검증을 한결과 이것은 자살인것이판명되엿다 시체의 의복에든유류품은 불근가족의 수첩과지갑가방명함녓는 것주머니칼 만년필등으로 그수첩에 적은 일긔를 조사한즉 오월십일外지계속되여잇고 그후에는 긔록지아니하엿슴으로 이것으로 미루어보아자살한 날자도 분명 오월십일로 단정되며쏘한시체의 엽헤는물을 담은사이다 병이노여잇슴으로 이것은 무슨독약을 먹을째사용한 것으로 추측되며 지금현상으로는 신원은 아즉관명되지못하엿스나 목촌의화(木村義和)라고로마글자로씨여잇는 것이라 든지일본대학의 단추를단것으로 보아학생인듯도 하며 쏘는상점점원인듯도 한데 그의수첩에 적은유서에는 다음과갓튼 문구가씨여잇다 나의 일생에지은죄는 용서하시요 속게에잇는 동서안에 여러가지죄악을 사과한다 원컨대용서하시요 세상은 허질것업는것이다 생을 인간에타고 난이륵권을버리는것은 앗갑다 그러나다시 생각해보면 쏘한허잘것업다 평안이게시요

社告

任三防支局長 安貞洙

本報三防支局을 右와如이 設置함

昭和七年六月三十日

朝鮮日報社白

新女性 二十錢 가장아름다운雜誌

◆◆世界女巡查이야기 三十錢結婚式 / 培花女高校卒業生언파레ㅣ드 / 崔承喜女史는웨舞踊을그만두엇나 / 女醫師李德耀는웨北平에서客死햇나 / 本讀學童과點心問題 / 主婦와家計簿 / 主婦夏節小兒皮膚症 / 姙娠時의惡阻症 / 쌀을製絲工場에보내는農村父兄께 / 그들은웨그러케되엇나 / ◆왜離婚을햇나? ◆왜시집을안가나? ◆왜自殺을하엿나? ◆왜子息을버렷나? / 特輯文藝 무엇이그女子를……李瑞影 너룸파女子方仁根 / 久遠의女像李泰俊 / 李忠武公碑文을 / 双童處女訪問記 / 色다른夫婦……主催 / 再婚을提唱함

別乾坤 十錢 頁數倍加 表紙極彩色

이달의世界動向 / 農村女性行進曲 / 婦人의公權과私權 / 이시즘이란무엇인가 / 歸鄕하는放學과女學生들……曹在浩 / 女學生鄕土智海의研究……崔瑨淳 / 生세政治家는大禁物……朱耀燮 / 世界의情勢는! / 여름밤鐘路行進曲 / 海水浴場의에로、그로 / 西國漫談尖口哲學・失戀復讐 / 이마에寶石백인男子 / 探偵小說列車中의怪變 / 中國話痲雀에얼킨情史 / 長篇講談滄海力士 / 全社員總出動大京城一時間探訪記 / 連作漫談당나귀탄아저씨 / 쏘ㅣ트場의로ㅣ멘스 / 임자찻는百萬圓 / 馬占山의北滿脫出記 / 朝鮮日報騷動眞相 / 名士身體秘密檢查 / 난봉女레뷰 / 食人種探險記 / 漫談잡동산이 / 內容의一部分만이지마는 러케자미잇는것입니다 말보다도事實을한번보시요 / 유ㅣ모어小說 / 午前四時 / 來八日出來!

第一線 (제 일 선)

彗星改題 開闢社의巨大雜誌 七月號總觀 京城 振替京城八一〇六

學國內閣의前途……咸尙勳 / 多難한現政局……李晶燮

世界의危機 世界不安의眞相 / 滿蒙中心의日米對立 / 地中海의佛伊對立 / 大戰以後英米對立 / 獨逸中心의英佛對立 / 資本烈强과對露關係

◆米國資本主義의沒落……韓普容 / ◆米國資本主義의動搖……成龍

인푸레손은財界를救濟할가 高在旭 / 畫中之餠인農債猶豫案 馬達 / 朝鮮現實과인테리……金亨俊 / 朝鮮勇士權金兩君國際的進出 金泰浩 / 朝鮮日報는어데로가나……觀戰生 / 特別讀物 奇人怪人物全集 / 禿頭哲學講座 / 都市生戰線 / 大養首相暗殺記 / 史外史話 思悼世子哀話 / 滅亡한마야帝國 / ◇朝鮮美展漫評……火歌生 / ◇玄人君의蒙을啓함……蔡萬植 / ◇迷蒙의文壇……李軒求 / 大京城戀愛行進曲 李瑞求

四六倍版一五〇頁 口繪・表紙極彩色 三十二錢

文藝 밤……劉大杰 / 改札口……崔允秀 / 어미와딸……姜敬愛 / 同志……金華山 / 五月의에……金海剛 / 滯鄕異信……朴載崙 / 바다가의어느에 崔義順 / 모기장……崔信福 / 누구를기다리나 七星 / 暴布雜筆……白菱

名士誌上假裝畫報 曹晩植・申興雨・李相協・權讀奎 韓龍雲・朴熙道・朴瓚熙

問題人物雜評 朴仁德・許貞淑・李光洙・宋鎭雨・張德秀

어린이 ▲來六日出來 ▲十錢 미리注文하라

▲特輯內容 朝鮮에孤兒二萬名 / 社會란무엇인가 / 在外少年生活消息 / 쏘베트에잇는朝鮮少年 / 間島의朝鮮少年形便 / 日本잇는朝鮮少年은 / 哈爾賓의朝鮮少年近況 / 評壇 半年間少年小說總評 / 子女에게責任感을 / 先生님께抗議 / 童話 욕심마흔가마귀 / 슬퍼하는나무 / 炎天에씨는農民生活 / 書翰 女子高普에다니는누이에게 / 시골잇는동생에게 / 少年詩一 黃昏……金佑漢 / 兄님집팽이……失名氏 / 젊은사공……金聖泰 / 나의방맹이……鄭大鳥 / 사공의노래……李智厦 / 호미를쥐고……鄭仁赫 / 童劇 개고리와배암 / 少年小說 出家者의편지 / 한짐 / 嘉呪 / 其他記事滿載

新經濟 第二號 大衆經濟雜誌 一部二錢 一年分二十四錢 조선에잇서서經濟가第一이오 누구나다읽으사

家庭

어린이의훔치기버릇은 군것질에서생기게된다
돈가치를알기전엔 돈을쓰게하지말일

어린이의 불량하게되는 두가지 큰날분버릇을 들수잇습니다 그것은 훔치는버릇과 거짓말하는것인데 이 두가지는 어린이를 불량케하는 원인이 되는것임니다

도벽 이 훔치는 버릇은 여러가지의 원인이잇스나 그의 큰원인은 사먹기와 낵이하는것임니다 낵이하는것은 십이삼세의 소년기에 더욱만흔것인데 청초가튼때에 돈치기가튼것임니다 사먹는버릇은 유칠팔세이 유년기에 시작되며 더욱이시골로서는 봄철 여름철문박그로 해방될때에만습니다 납분버릇이되는 사먹기의 **원인** 은 가뎡에서 한푼두푼의 과자를사서 먹이게되는것으로 시작되야 이것이차차로 부족을늣기게되며 어린이의 취미도됩니다 그리하야 영양보급의 의미의간식이면 관계치안으나 취미로먹게되는 간식은 국사먹는 버릇이되고 맘니다 즉 집에서암전히먹는것을 시려하야 길거리에서먹고 맛기는것에 흥미를갓게됨니다 그러는 편 **금전** 즉 돈을가지면 과자라든지 고구마가튼것과 교환되는것에 어린이다운 새미를 늣기는동시에 돈에대한 가치관념을쌔닷게되야 사는것에흥미를 갓기시작되면 차차로 잔돈푼으로서는 부족하게되야 나중에는 물내집에돈을 훔쳐내는 납분버릇이 생기게되는 것임니다 이문데의 가뎡처리법으로 데일 간식의제한을할것 영양보급의 의미로 시간을일정히하야 주게되면 처음엔 **부족** 을 늣기게되나 곳교정이됩니다 데이는 손님으로서 과자가튼것을사가지고왓슬때에 이것을즉접 어린이에게주는것은 데일위험합니다 일단 어른이 바다두엇다가 일정한시간에 주게하십시요 데삼으로 사오륙월그때는 위에말한것과 가티 어린이가 데일사먹는버릇이 늘게되는데임으로 집에서는 아무런버릇이업다 하드래도 밧게서노는것을 감시하지 안이하면 안이됨니다 데사는 어린이가 가장 **불량** 케되는 가정은 통게상 소매상인의가정에 데일만흔데 그원인은 현금이 보이는곳에잇고 쇠내기가조흔까닭임니다 그럼으로 잔돈에대하야 각별주의를하야 돈쓰는것을 간검할 필요가잇습니다 이를위하야서는 소학교 오륙학년이 되야 금전에대한 가치관념 교환관념이 생기게된후에 비로소용돈을주며 용쓰는것을 일일히 기장케하며 남는돈이 잇게되면 이것을 **저금** 을 식킴니다 장부를 맨드는것은 어린이의 경제관념을 기르는데 대단유효함니다 쏘 사먹기잘하는 어린이는 왕왕이 어른의이름을팔고 거[illegible] 상점에서 [illegible] 낫을내여다가 이것을 깁기위야 가정에서 돈을 훔처내는 일도잇슴으로 이때한 점에가 별한주의가긴요합니다

가정상식
더워짐에따라 독충이만허저라
독에파민 되이는 독별히주의할일

벌종류가 요사이는 무쉬운 독소를가지고 쏨으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는 독을가진나븨들은날개에 유독한가루가 잇서서 이것이 살에다으면 피부를자극하고 대단히 압픈 염증이생기며 부푸르기도하는데 이러케되면 몹시가렵고 또는발열이됩니다 말하자면 피부의과민증이 생기는 것임니다 이와가티 벌이나독충에 쏘인때는 암모니아수나 주정으로씻습니다 제일안전한 오금수당으로는 그때에 독을빼흔후에하는것도 효과가잇습니다 부푸른경우에는 이것뿐만아니라 연고(軟膏)를 바르고봉대를 감어두는것도 조습니다

여름철에가장만흔 귀병에주의하시요
수영하다귀병이잘생겨 그간단한처치와예방법

장마가지고 참으로 더웁게되면 산으로 바다로피서를가게됨니다 그외에 시골서는 압내로 뒤강으로 수영하려가십니다 그런데 이수영과 귀(耳)와의관게는 비교적 밀접한것임으로 두서너가지 귀병에대하야 말하고자함니다

중이염 이원인은여러가지의 미균이귀에들어가서 되는것인대 그 드려가는경로는코(鼻)를몹시픈다든지 편두선(扁頭腺)아데노이드에 염중이생겻다든지 감괴가들어 인후가압픈때 구씨관(歐氏管)을통하야 미균이 중이(中耳)에 들어가는것입니다 귀타 열성전염병의병원균이 혈액내에서중이(中耳)로 범하는일도잇습니다 수영으로서중이염이되는것은 고막에구녁이잇는사람이 귀에물이들거나 물속에들어간다든지 코나 입으로 물을먹은경우에물이 귀속에 들어가서 귀병이되는것입니다 중이염이되면 신열 이통(耳痛)두통(頭痛)이나고 잘들니지들안이하야 귀를막은것 갓습니다 그다음에 고름이나는것인데 혹은 유자돌기염(乳嘴突起炎)이 뇌막염이되야생명을위협하는일도잇슴으로주의하여야합니다

예방법 으로서는 편두선비대와 아데노이드가 만어지는어린이는 수술하야업새이고감괴들지안케주의하며 수영을하려면 드려운물에서하지말며 물에들어갈때난솜에와세링을칠하야 두귀에막으며물속에들때나물결이닥칠때는 코나입으로물을먹지안토록하며 놉흔곳에서물에뛰어들때귀를막지안토록주의하는것이필요합니다

외청도습진 (外聽道濕疹)이것도 해수욕 또난수영후에 드려운물이 귀에든것을내버려두면 이속의 피부가헐거나 곪기여 고름이나며가려워서어린이들은작고글금으로습진이점점더하야 곤란을밧게됨니다 또이것은 중이염의고름이 뭇거나목욕할때에 드려운물이 귀에드러가서되기도함니다

예방과치료 이것의치료는 오리ー부유로 잘 습진을씨슨후아연화오리ー부유를매일 바르면 낫습니다 예방법으로는 중이염이면 치료를잘하며 해수욕또는입욕 할때에 귀에물이들지안케하며물이들게되면 정히씻고의사의 의뢰를바드십시요

외청도종기 (귀속의종괴) 이것도 습진과맛찬가지근중이염의 고름의소제를잘못한다든지 해수욕또는 입욕의잘못으로 차차로가려웁게되야 귀를성냥가튼것으로 쑤시는데원인이됨니다 이병은 대단히압파서 밤에 잠을자지못할만치 압픈일도잇습니다 대개는귀근처가 붓게되나고름만나오면 고만낫게됨니다

치료법 으로는 귀속을 오시홀로 잘씻고 푸로다골을 칠한 솜을끼고 귀을차게찜질함니다

귀지 이것이 귀에차면 잘들니지를 안이하고귀가 울기도함니다 더욱이 물이귀에들면귀지가불어서 먹먹하고잘 들니지안 이하며 혹은 외청도염(外聽道炎)이되기도하는고로 물노갈때는 귀지를정히업새는것이 안전합니다

제거법 은이러케합니다 중조(重曹) 一구람、구리서렌五구람、증류수一五구람을 오륙방울씩 두시간마다사오회만너흐면 이튼날은귀지가 유하게됨으로 그때에미지근한종산수로 씨스면 정히 청결안이라 조곰도압프지아케 귀지를업새수잇습니다、 살코귀게나 핀셋트로귀속을 을여서는안이됨니다

닭이알(卵)성하게 두는법을새로발견

미국농림성에서는 오래뭇인연구한결과 최근에달기알의 표피의 긔공(氣孔)을봉인(封印)함으로써 재란을 상시일 청한새로 둘수잇습을발견하얏다합니다 그방법은 우선 성한달기알을가를속에 잠근뒤에 다른와사(瓦斯)를진무왕아버린 진공함(眞空函)속에서 이산화탄소와사(二酸化炭素瓦斯)기운을 쏘인다는것입니다

해외소식
사형수(死形囚) 실험용으로

미국보험국장 포리바ー크이드박사는 전번 전미국의학대회에서 진안(珍案)을 제의하얏는데 그것은 무엇인고하니사형수를 그대로 죽이는것은 앗거우니 의학용의실험대(實驗臺)를 삼자는것이다 만약죽으면 사형비용이 절약되니 못코 만약산다구하면 실험의위대한성공을 인류의 행복을 위하야 큰공훈이되는의미는 그은상(恩賞)으로서 사형수를 무죄방면한다는수작잡으로 미국사람다운단안(斷案)이다

讀者文藝

「님생각」
(伯林에게신宥浩兄님께)
都世浩

가시올적 못뵌님을
이제다시 그려보니
어제련듯 님의맵시
검은눈에 밝히건만
알들하온 말소래만
귀에쟁쟁 하옵니다
×
밤은깁허 고요한데
뭘아래에 눕히여서
철니우는 귀곡새는
님의넉을 실어오는
흐르나니 城川江도
눈물인가 하옵니다
×
한세상은 잠이들어
죽은듯이 고요한때
내마음에 어려커니
님이신덜 편하릿가
몸이야 그곳인들
마음이야 거잇스리
×
님게시든 그날밤에
굿게맹세 하온마음
님안계신 오날엔들
一片丹心 변하릿가
다시뵈올 그날까지
貴하신몸 保重하소

집웅우에풀한포기
大邱 李春泉

남쪽나라 좋나라
머나먼데서
일운풀을 노란새가
물고가다가
풀내풀내 떨어틀인
큰풀씨하나
어지려진 우리집
모진바람 모진비에
못이기여서
그눈물이 된졍에
한바배엿네

개나리

산파들에 가득이 맺처피엿네
나리나리 개나리 맺처피엿네
◇
이마을도 나리는 만코만아요
순사나리군청나리면소나리가
◇
그래도 이곳나리 꼿안이피고
머리들고 생내며 단기는나리
◇
산파들에 가득이 꼿핀나리ㄴ
머리수거 유순이 웃는나리ㄱ

말방아

방아방아 연자방아
잘도 도누나
뱅이뱅이 쇠경쇠경
소태 지르며
뱅글뱅글 달니
마멍애에
달니 여도네
◇
방아방아 연자방아
잘도 도누나
호이호이 채축소래
들녀 오면은
얼니뛰는 말니여
마멍애에 휙휙
맥업는 주인영감
뒤 따라휙휙

여름의卓上

童謠
三月삼질날
朴養浩

머나먼 강남서
날너왓소
날너왓소
아가씨 도련님
×
그리고 먼데서
차커왓더니
차、왓더니
사리작문 고이닷고
어데들갓소
×
지난해 봄과는
떡도변햇구려
떡도변햇구려
쓸쓸하게 만들고서
어데들갓소
×
힘업는 이날개
다시날너서
다시날너서
가신곳을 알녀고서
떠나감니다
×
뭇업시 차저서
어델지라도
어덴지라도
가신곳을 차저서
떠나감니다

‖王方山아래釜谷허도 변해가는魚龍村에서‖

在貞이를爲하야
三 [illegible]雲生

나의 나회아직 未滿이요 더욱이 나는늙은父母를 우에모시고잇는 處地에서 子息의말을 말하기는 너머도거북한것갓흐다。아니 거북하다는니보다 부쓰려옴이먼저 압흘선다。

그러나 그거북한보다도 부쓰려옴보다도 在貞이에게 對한 그무엇이 더切實한때야엇지하랴 더욱 요새偶然한機會에 有島武郎氏의「小さき者へ」라는 小品을읽고는 在[illegible]는 一層더 늣겨진바가만헛다。

在貞아 너는 이世上에呱呱의聲을 올리기前 너의어머니의 배속에서부터 咀呪하든조그마한 한生命이엇다 네가어머니의 배속에서 生命을갓게된지 六個月이되든달부터 너는괴로움을 맛기始作하고 또 너의 어머니에게는 一層더의 괴로움을 끼쳣다。그리하야 九個月이 되는때는 너의어머니의 全身은 퉁퉁부어올라너는 이世上을 구경하야 보지도못하고 母體속에서 어머니와가티 저세상으로갈번하엿다。事實은 오늘을넘길가 來日을넘길가하고 家族들은 무거운恐怖에싸혀잇섯다。그러나 多幸히 죽지는아니하고 八月十日날 일은새벽無事히 너는世上에나왓다。

○月十日! 일은새벽 그때부터 너는울기始作하얏다。生活苦! 人生苦! 現實苦!를 난때 그時刻부터 맛보기始作하얏다。어머니의 가슴이 그리워 젓이업서울엇다。

너의어머니도 赤是 사람인以上에는 子息이 귀엽엇슬것이다。그에겐들 母性愛가 업섯슬理야잇겟니? 그러나 ○는날까지 너를 한번힘껏안어주지도못하고 젓한목음 흡족히 먹여도보지도못하얏다。그에게는 그럴힘이업섯다。몸이 너머도 괴로웟든것이다。精神을차리지못하얏다。

그리다가 중시자리에서 일지못하고 난지 겨우석달이되는너와너의兄○○이를世上에 남겨놋코屈從과貧困과苦悶과 冤鬪의恨만흔 三十平生을 고요히 눈감아버렷다。

어머니가 살어잇슨 사이도 決코 어머니의노릇은 못하얏지만 그래도 그의肉身마저써숙에들어간 오늘엔 비가더욱 가엽지 안호냐? 새들새들마려부흔 할머니의젓을물고 쥐음에는 눈알을 펴퓡돌려가며 불어뗄다가 진작젓이 안나오는줄을알고는 아ー하고 우름을타딧들이끈한다。

人間의悲劇! 果然너는 人間의悲劇! 父母의悲劇을 대여난罪의씨다。그러다罪는너에게잇지안코父母에게잇다。그러나 그罪가 누구에게잇는지를 相關할게업시 죽지말고자랄수가잇스면(?)자라라 地下의 어머니는 쪽쪽빅어둘어가도 너만은 그어머니를거나불必要가업다。어머니를거불하고 誕生한 네가아니냐?

너의어머니는 마즈막으로 숨을끌때 겻헤서 새색잠도록 두어린것들을 보고는(저것들에 하나가 사내색기이엇든들 棺속에서 눈을감겟지?)하고 그만 가바렷다。祭祀統이라는 封建遺風에 自己의 唯一한 美德을 强制當한그의 날이니 굿해여 貴할것도업다 그러나 나는決코 네가져진애라고 섧어하지는안는다。죽지말고 살어라 오……咀呪바들 쓰거숭어 在貞아!

隨筆
都市의하루밤
ー特히서울男學生에게보냄ー
李碧厦

六月의맘은하날에서는 事情업시 쏙근쏙근한 해볏이나려쏘인다 풀청풀성자라나는가로에 돌냉새와 新綠의구수한 냉새가코를 치른다 萬物이자라나고生生한氣運이넘치는六月 六月의情緖는맛업시흘른다

아! 六月의한울! 叙情的노래가어대로서인지들려온다 都市의여름朝鮮을象徵하고 뭇업는늣김을준다

漢陽의 여름은 지러가는구나아! 無限한 詩情을이르켜주는 서울의六月! 朝鮮의여름을 美의여름이라고 부르고십다 그리고 哀愁에잠긴여름이라고도 불려보고십다

六月의 해빗츤 鍾路活舞臺를 래우라는듯이 쏘이고잇다 漢陽의여름은무르녹어간다

이와더러 鍾路街道를 살피여보자 中等程度學生들의 洋服을보자 이것도流行의 하나인지는모르되 洋服바지통은 나팔이라든지구두동가지뒤덥힌[illegible]가 밤만되면 鍾路街로 물쏘듯흘너나온다 그리하야 劇場으로食堂으로××으로 도라단기며 風紀紊亂한 行動을한다 낫에學校에 못들려잇든그들에게 맘의都市는 맛치活舞臺인듯도십다

夜市의싸구려소리도말할수업는詩味와生活이엇더케술프고애달푼것을알려준다 겨울몽안담모퉁이에 잠자든 불상한朝鮮의한사람인乞人들도여름이되자큰길거리로궁글너나온다 아! 잠을잔다 憂鬱한漢陽의初夏 六月의太陽이 붉가티쏘이는 서울의 여름을 재촉하는듯 붕이붕이 피여오르는 힌구름은곱게보인다

이밋헤서다떨어진勞動服을 둘룬 自由勞働者와 土幕가튼 工場에서한쏘각의쌍을求하고 커 專念으로일하고잇는것을 볼때에 無限한哀愁를늣긴다 同時에할便으로는무엇의라形言할수업시勞働의神聖함도쌔닷게되기는한다

아! 都市의밤! 이골목커골목에서들려오는 소리는 한總日貧困과싸우며 하루하루의 품파리하는自由勞働者와 土窟가튼工場에서비지땀을흘려가면서 죽도록일하고 집이라고도라온職工等等ー한終日의疲勞로 呻吟하는소리 늙은! 父母와세々마른妻子의飢餓에우는소리! 病으로괴로워하는소리! 이러한소리를드를때마다나의마음을괴롭게할따름이다

人生生活에서 努力가티 重寶된것은 다시업다는것을 生覺하게된다 모든것에잇서 不足함이만흔 우리朝鮮의 한사람으로써 無限한 幸福과安樂을어드랴면 無數한苦痛과 싸우며 勤勞를覺悟하고 나가지안호면 안될것이다

우리는 朝鮮의男性인만큼 만흔責任을지지안으면 안될處地에잇다

綠陰은客오기를苦待하고 都市의밤은歡樂物을苦待한다 然이나 우리는假面의安樂을 버리고하로밧비 眞實하고 참된人間이되며 압날의 朝鮮社會가 우리들의 理想대로永遠한참된社會되기를期約한다!

太陽劇場 春香傳上演
ー七月六日부터市內第一劇場에서ー

요사히 시내 단성사에서 련일성황리에 공연을맛치인『土月會』개명 극단 태양극장(太陽劇場)에서는 우리들이 가진 조선향토예술품(鄕土藝術品)중에서 가장 위대한작품인 춘향전(春香傳) 전십막을사청에의하야 오는칠월륙일 부터 시내제일극장에서 상연할터인데 원악이거대(巨大)한작품인만치 연출(演出)방법이나무대 장치와의 상가튼것도재래에 보지못하든 새로운맛을보히리라하며 특히 각권번에서도 기생들의 우원출연도잇슬테이고명창(名唱)의누르는 노래도 극중의대사와뚝가티진행(進行)되리라하는데 이춘향전 전편을상연하기는 칠년전에 광무대(光武臺)에서 토월회(土月會)가 처음으로 상연하엿고 이번이 두번재이라 하며개막시 간은 오후칠시부터 이라더라

新刊紹介

第一線 七月盛夏號
主要目次 世界列强의苦惱。擧國內閣의前途。多難한現政局의展望。全朝鮮奇人怪人集。朝鮮現實과인테리。外漫筆、文藝等記事數十種。京城慶雲洞八八開闢社發行(定價三十二錢郵稅並)

東亞商工時報 (旬刊ー八十三號)
主要記事。經濟復興策。全世界經濟會議。中小商工業者救濟根本策。農村救濟策案。京城商議의座談會結果。外商工記事多數。
京城竹添町二丁目
東亞商工時報社發行
定價十錢。

오듸라

七月五日 火曜日

▲午前一〇時〇分 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仁川觀測所發表 ▲同一〇時四五分料理獻立、日用品値段、鮮魚卸賣相場、京城府廳水産市場發表 ▲同一一時五九分 正午의時報、뉴ー스 ▲午後〇時三〇分人情噺牡丹燈籠 第二席‖柳亭燕路 ▲同一時一〇分趣味講話(一)俗離山에올라가서‖徽文高普金道泰 ▲同二時一五分趣味講座여름의山과傳說(二)‖金非鎭 ▲同四時〇分뉴ー스公示事項 ▲同五時四五分라지오體操、職業紹介事項、當夜의푸로그람發表 ▲同六時〇分이야기水泳時의注意‖根岸虎之助 ▲同六時三〇分라지오學校女子의體育(一)第一高女‖本鄕 太郞 ▲同七時〇分뉴ー스公示事項、翌日푸로그람發表 ▲同七時三〇分講演夏季의虛弱兒童의衛生‖醫學博士佐藤小五郞 ▲同八時〇分한와이民謠(B)‖獨唱井上起久子、同草原敬一 ▲同八時二〇分浪花節(B)熊谷と敦盛須磨の浦風‖吉田日の丸 ▲同九時五分新內(C)‖富士松春太夫 ▲同九時三〇分時報(A) ▲同九時三一分滿洲에서 引續 氣象槪況、各地天氣實況‖仁川觀測所發表 引續 西道雜歌 一、愁心歌‖表蓮月 二、寧邊歌‖申海中月 三、難逢歌 四、盲打鈴 五、巫女

短篇小說 暴風雨(十二)
咸英一 作

『잇따 일곱시쯤말이야』

『네ー、』숙히는 고개숙인채가는다란대답만을 남기여노코 박그로나왓다 용선이가 덕월산(德月山)을반즘음나왓슬때 검은하늘로부터는 커다란 비방울이 떠러지기시작하엿다、뢰성번개와 함께 비는 컴컴맹렬히 퍼붓기시작하엿다 그는할수업시 월파루로올나가 비를것고 안저잇섯다 기대려도 비는조련이 근칠것갓지 안엇다 조곰만잇스면 근칠까 근칠까?하고 기대리든、그에게 겁이포를 향하여떠나가는 일곱시차의 기적소래가 요란이들리엿다

『아ー이것봐 정말가기는정말글넛는걸! 비가근치면 몰아가야 되겟군!』

그는영감한테 말이나 안들을까하여 좀써리엿스나 숙히생각을하면 다행이 잘된것갓기도하엿다

ー가 월파루에 비를거려고 들어안즌지도 두시간이나 되엿다 그러나 사납게내리는빗소래만 점점더 그의심정(心情)을 흔들분이엿다……

그래그는 쉽게근칠비가 안임을 집작할때 숙히의신변에대한 생각에 더욱초조하여그는그대로집을 향하야숙보(速步)로 것기시작하엿다

이때 숙히는자긔남편을 기다리는마음에 비소래가 더욱괴로웟다 그는영감이 명령한대로 이것저것 평시(平時)에남수가조와 하는멧가지 안주를 상에노아가지고 남수가잇는침실로 들어갓다

『머ー안주드려왓서ー 거게노코 커아랫방에가서 술병가시고와』

『비!』

술병을가지고 올나오는숙히의 태도를 다시한번바라볼때 그의두눈은 벌서보통사람이 사람을바라보는 시선이안이엿다……

『커ー용선이는 아마자고올단지도 모르니와나가거 대문걸고 들어와유! 어서 ㅎ문거려ー』

『네ー』숙히는 컴컴무서워다 그는엘리는 가삼을옹켜쥐고 대문을건뒤마루끗헤 쉬이섯다

『숙히ー』

『네!』

『어거봐! 드려와서 술좀따려ー』엣잔마신 술이 역근취한 남수의두눈과 머리속에는 성욕(性慾)밧게 아무것도 업섯다

숙히는수저주저방으로들어섯다

『자ー북그려말고 술좀따러ー』남수는 술컵을 들어숙히압해내대엿다

숙히는 할일업시 술병을드어 한잔가득히 따려주엇다 차박게는 번개불이번적할때마나나무닙우에 비바람 소래만이 요란하엿다

『하ー두시간채 비가이러케쏘다지는그래! 이리다는 잔나지겟는걸 세시간만 이가리오면 압동이넘는데 ……허ー이거ー큰일나나보다』그는자신으로 걱정되는듯이 이가리숙이대며 숙히압헤 다시술권하내대엿다

숙히는 말업시 쏘그리고아커 술만을 따려주고잇섯다。남수는 컴컴취하는 것이여난참숙히의안즌 모양을 바라나한산을 쑥 느려마신후 그느보앗다 숙히는 조각(彫刻)모양으로 손끗하나 달삭하지안코안저잇섯다

『숙히ー』

『네……』

『커ー고만술상을 치리로치워』

『네!』숙히는이제야 살엇나는듯이 얼는이러나 술상을들고 박그로 나가려하엿다

『하! 아니야커구석으로 미러두란 말이야누가박그로 내가랫서?』

숙히는 억골을 불키며그대로구석에 다시논채 박그로나가려하엿다、이때남수는얼는닐어나 숙히를 색안엇다

『아이고노서요 점잔은어른이』숙히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날카려웟다

이때용선은 비를마즌채 대문밧까지왓다

대문을여려 달나려고 자기안해숙히가자고 잇슬방을 창까지가서 드려다보앗다 컴컴하여보이지도 안코 불너보앗스나 비소래에 들리지도안는것가타 그는과 수월됫납을넘어들어갓다 용당 어선방에든지불이켜잇슬 것인데 죄불이써커잇고 자긔방에 숙히가업슴을보앗슬때 그의두눈은 어둠속에서 빗낫다 그는얼는남수가 자는침실압까지갓다

어둠속에서 놉흔 숨소래와함께 사랑하는 자기안해의우름소래가들릴때 그의의분(義憤)은맹렬(猛烈)이라오르기시작하엿다「에ー잇더러운놈 도야지가튼놈!」그는곳 마루아래에서 독기를써내놓고 문을확여려제쳣다……

피비린내가코를씨르난완월장일쪽에는 사나운 바람과함께 등넘어 적벽강홍수(洪水)의 구비치는 파도소래만 이요란할뿐이엿다……『끗』

ー(이한편의 소설을만천하농촌(農村)동지들에게보내노라)ー

(七月一日杏村旅舍에서)

더운줄모르는사람 (알푸스山을차저서)